

불서 출판 '가을 준비'

禪관련서·청소년 기획물 주류 이룰듯 장기 불황여파 '양보다 읽을거리' 승부

불서전문출판사들이 올가을 독서시장을 겨냥해 알찬 읽을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올가을 불서출판은 출판시장의 불황여파로 발행종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 관련서와 청소년대상의 불서출

판이 관심을 모은다. 불광출판부는 <경허선사문집> <초의선사 다선집(茶選集)> <선 의 정신(正心)>을 준비하고 있다. <경허선사문집>은 지난 91년 국

체재로 펴낸 계획이다. <초의선사 다선집>은 '동다 송'을 비롯해 그동안 번역되지 않았던 '다선전(茶神傳)'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를 포함해 선다일어(禪茶一如)의 면목을 보여준다. 번역자는 통

관스님(갈밭암 주지), 고 김중해박사(전 국립의료원장)의 유고로 모은 <선의 정신(正心)>은 빠르면 8월중 선보인다. 오랜

선 수행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정신회화적 측면에서 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불광출판부는 또 신라~조선

시대까지의 선사들의 수행일화

를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백운스님이 동산스님을

시형하며 들었던 '선방 뒷 이야기'에 여러 자료를 덧붙여 11월

경을 펴낸다. 우리출판사는 새 기획 '한글

세대를 위한 고승' 시리즈 가운데 이차훈 김시습 경허 용성

정철스님 등 1차분 5권을 9월

중 펴내는 데 이어 올해안에 10

권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한국불교사에

적절한 족적을 남긴 20명 불교

인의 삶과 사상을 한글세대의

정서에 맞는 문체와 이야기로

구성,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

는 가운데 불교의 세계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불교시대사는 '불교의 수용과

변화' 시리즈를 펴낸 계획이다.

'불교의 수용과 변화'는 불

교가 전파되면서 각국의 고유

한 종교사상과 어떻게 충돌하

고 융합하면서 자리잡게 되었

는가를 밝히고 있다. 인도 티베

트 중국 한국 동남아 일본의 사

례를 불교와 정치·예술·사회·

철학으로 분류해 서술했다. 각

국의 문화이해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사는 '불교와 기독교

대화' 시리즈에 <선과 현대

禪만화 '달마의 제자들' 펴낸 고우영 화백

본격禪만화(달마의 제자들)이 나왔다. 고우영 글·그림, 불지사 펴냄. "선은 우리시대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철학과는 비교가 안되는 동양만의 고준한 정신세계가 담겨있는 광활한 바다이며 현존현리를 거느린 우람한 산맥입니다."



고우영화백은 특히 원자화되고 속도에 쫓겨 자기모습을 잃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선은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마의 제자들>은 달마로부터 6조혜능에 이르기까지

"웃음·해학으로 접하는 역대선사 구도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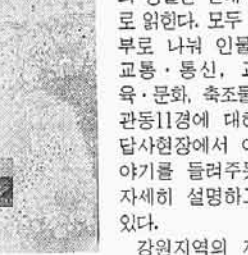
중국 선불교의 법맥을 이어온 조사들과 한국 불교를 빛낸 고승들의 치열한 구도의 세계를 고우영화백이 특유의 반독이는 재치와 해학으로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따라서 선이란 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흰 구름처럼 막연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지금까지 선을 주제로 무민 만화는 여러 본 것 있었으나 대부분 일본 것의 번역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은 목조선 중 심인 반면 한국과 중국의 선은 화두선의 전통이 강하다. 또 일본의 선만화는 선을 소개하는 개론의 성격이 짙었다. 이번에 선보인 <달마의

영동지방 역사기행 방동인 지음

강원도는 우리나라 어느 곳 못지않게 역사유적이 많은 곳이다. 특히 선사·고신라·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걸쳐 각 시대마다 굵직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어 지역전체가



의 충실한 안내서로 읽힌다. 모두 5부로 나눠 인물, 교통·통신, 교육·문화, 축조물, 관동11경에 대해 답사현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자

강원지역 유적 시대별로 해설

역사박물관으로 손색이 없다. 또 빼어난 자연경관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영동지방 역사기행>은 강원지역의 한 역사학자에 의해 쓰여진 지역의 역사·문화보 고서이다. 따라서 '공부관공'

연경관은 관동8경으로만 알려졌다. 이 책에서는 영조 때의 화가 김상성의 화첩을 실어 일출정 낙산사 해산정(삼일포)을 포함한 관동11경을 최초로 소개해 주목된다. <신구문화사, 1만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용수보살의 '中論'

흔히 가장 갈등이 없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하듯이 불교가 갖는 포용성은 불교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포용적인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못지 않게 기만 갈수록 불교를 어렵게 인식하게 되고 때로는 영동적인 길로 빠지게 되는 위험성도 아울러 내포하는 것 같다. 아마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러한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윤회한다는 것은 내가 다음 세상에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인가?' '깨달음이란 신통력을 얻는 것인가?' '진정한 해탈이란 세속을 초월하는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면 무언가 응답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색즉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등등 초월적이거나 신비적인 생각에 잠겨 마치 부처님으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무기(無記)'라고 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철없는 제자와 같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필자는 요즘에도 지

배워야 할 것은 그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치밀한 논리성, 철학성이다. 용수는 결코 신봉이나 초월을 말하지 않으며, 삼매와 같은 방법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의해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상 우리가 보통 대하는 대승경전들은 분석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함경에 보이는 부처님은 지극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다. '중론'은 그러한 원시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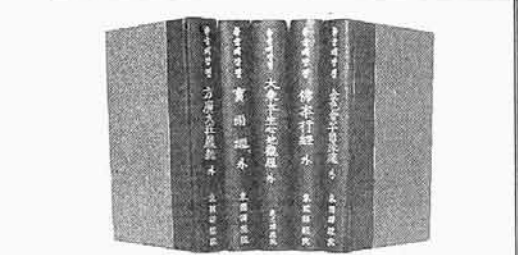


최 일 범 (성균관대 교수)

불법의 철학·논리적 진리 서술 아함경등 원시불교 모습 계승

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불자 누구누구가 당선되었다든가, 열심히 주력했다더니 난치병이 치료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기복불교, 신비주의 불교, 배타성의 불교가 일반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불교에 내재하는 종교적 신비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불보살의 가치를 받아야겠다는, 내가 신통력을 이루어 이적(異域)을 보여야겠다는 이기심을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을 뿐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론'을 권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론'이 팔종(八宗)의 조(祖)로 추앙되는 대승불교의 선구자인 용수보살의 저작이며 그 내용이 공(空) 사상에 입각한 중도실상의 진리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중론'을 통해서 우리가

른 철학적이든 논리적이든 언어와 사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지만, 언어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논리적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를 초월하는 선(禪)의 수습(修習)마저도 명철한 이성과 논리적인 사유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야 다양한 불교의 모습을 이성의 토대위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론'을 산스크리트어 원전이나 한역(漢譯) 주석본으로 읽는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최근에 한역 주석본과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번역한 노작(勞作)들이 출간되어 쉽게 '중론'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서원에서 출간된 김성철 역주 '중론'과 장경각의 반인성 역의 '나 가르 주나' 등이 그것이다.



역경원, '불본행경' 등 5권 동시 완역

동국역경원(원장 율운)은 최근 부처님의 전생담과 인연 이야기를 담은 <방광대장엄경> <불본행경> <대승보살심지관경>을 비롯 <금색동자인연경> <보우경> 등 5권을 동시 번역, 출간했다.

<방광대장엄경>에는 불타탄기의 제3부, 즉 성도 후의 초전법륜부터 이승에서의 교화사업까지를 기술한 <불설중본기경>을 비롯 <불설보요경>이 포함돼 있다. <불본행경>은 부처님의 복덕을 찬탄하는 운문형식의 경전이다. 뒷편에는 <장로계>와 <장로니계>를 포함했다.

<금색동자인연경> <광명동자인연경, 덕호장자경, 초본설경 등 포함>은 부처님 입적 후, 아난존자가 교화한 어느 상인의 아들 금색동자의 출생

과 출가의 전기를 담고 있다. <보우경> <화수경, 대승백복장엄경 포함>에서는 불교수행덕목의 해설이 실려있다.

역시아문, 소식지 배포
신간안내등 서지정보

불서전문책방 역시아문(如是我聞)에서는 소식지 '역시아문'을 발행, 배포하고 있다. 매달 포켓판 16면으로 발행되며, 불교서적 신간안내와 서경 독자독후감 기타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소식지는 역시아문 도서회원에게는 우편으로 배달되며, 서점에서도 배포한다. 소식지를 받아보길 원하는 사람은 전화 (02)737-0695, 팩시밀리 (02)737-0696으로 연락하면 된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하늘 맑은 날	석성우	토방
2	하산	홍주	불지사
3	영가천룡법어	석성우	토방
4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임현담	호형
5	삼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6	금강경강의	무비	불광
7	알기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8	42장경	라즈니쉬	성하
9	존재론·시간론	새구미 편집부	불교시대사
10	달마에서 입제까지	일지	불일

구입문의: (02)737-0695

책방 역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대표) 737-8881 (서점직통) 737-0695
팩스 737-0696

여시아문에서 찾은 한 권의 책!

참된 불자라면
불법 더위조차 도반,
진리를 열망하는 불제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국내 최대·최고의 불교 전문 서점◆

- 책방 여시아문은 불교 관련 서적 및 역사·철학·사회과학 등을 총망라 5천여 종, 3만여 권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타 서점에서 구입하기 힘든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 판매와 도서 회원제를 운영합니다.
- 가입 전화 또는 팩스로 가입 신청을 받으며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받아보실 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십시오 신속하게 우송해 드립니다.
- 특전 회원들에게는 책방 여시아문 발행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리며 도서출판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발행도서에서 한하여 20% 할인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계절별 책잔치 등 현대불교신문사·책방 여시아문이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가장 먼저 초대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편안한 독서공간에서 누리는 최고의 독서 체험-책방 여시아문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